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東國地圖 三』의 군현지도 발달사적 의의\*

김기혁 · 윤용출(부산대학교)  
권정화(경북대) · 오상학(제주대)  
배미애 · 정암(부산지리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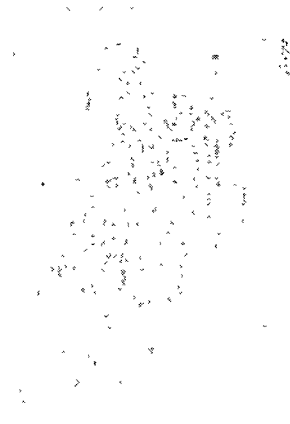


그림 2 『朝鮮地圖』(奎章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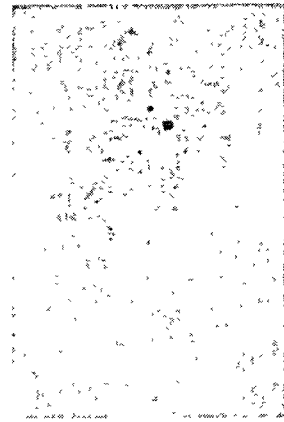


그림 2 『東國地圖三』(國中)

『東國地圖 三』(국립중앙도서관, 53×35.5cm, 1책 71장, 貴677 승계 古 2703-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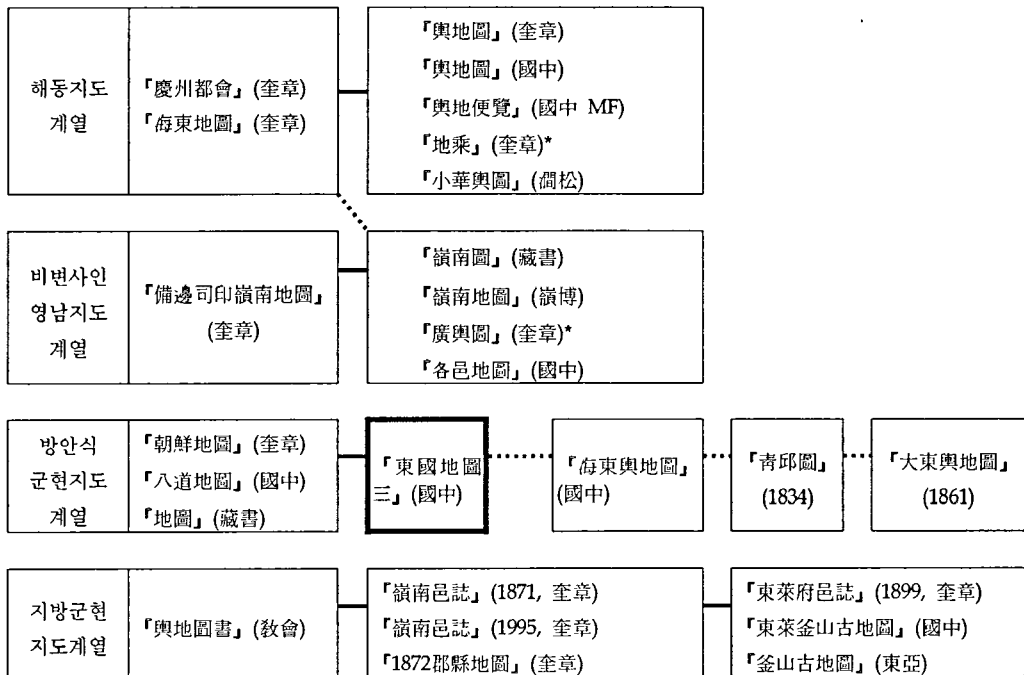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군현지도첩으로 20리 방안을 이용 경상도 71개 군현을 독립적으로 그렸으며, 경상도편만이 남아 있다(그림 2). 기존의 소개(한국도서관연구회, 1977, 한국고지도)에서 정상기 자필화본인 『東國地圖』로 소개된 적이 있으나, 이후의 소개에서(Ledyard, G, 1994, Cartography in Korea, in Harley, J. B. The History of Cartography, vol 2.2,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는 제작 주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1791년 정조대 이루어진 전국의 경위도 측정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필자는 기존의 발표에서(2003, 대한지리학회 추계발표문) 조선후기 부산 동래부를 그린 26종의 군현지도를 내용구성을 바탕으로 조선후기 군현지도는 4계열로 나뉘어 짐을 확인하였다.(그림-3 참조) 이 중 방안식군현지도계열은 지도위에 20리 방안이 표현된 지도로서, 제작목적이 군현을 연결하여 전국전도의 제작을 염두에 두고 그린 것으로, 『朝

\* 이 연구는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인문사회분야 지원 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3-072-1027).

鮮地圖」(奎章), 「八道地圖」(國中), 「地圖」(藏書)와 「海東輿地圖」(國中)이 이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특히 「海東輿地圖」(國中)는 앞의 세지도와는 달리 방안에 수치가 기재되고 동일도면에 2-8개 군현까지 연결하여 그림으로써, 全國 혹은 道別全圖 제작의 중간단계 지도로 파악하였다. 수록지명을 볼때 이 지도 계열이 「靑邱圖」 및 「大東輿地圖」의 편찬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그림 참조).

「東國地圖 三」에는 「朝鮮地圖」(奎章), 「八道地圖」(國中), 「地圖」(藏書)에서 20리 방안만이 그려진 것(그림 1.)과는 달리 부분적인 수정이 있었지만 거의 동일한 내용에 군현별 읍치를 중심으로 수치가 추가 기재되어 있으며(그림 2 참조), 이 수치는 「海東輿地圖」에서 각 군현의 방안 수치와 일치한다. 더 나아가 청구도의 일부 유형에서 삽입된 八道分儀에서의 방안과도 일치한다. 이를 볼때 이 군현지도첩은 이전에 제작된 방안식 군현지도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이후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海東輿地圖」(국립중앙도서관본)의 저본인 것으로 생각된다(그림 3).



- \* 김선은 부분적인 영향
- \* 「廣輿圖」(奎章)와 「地乘」(奎章)의 경우 일부 군현이 해동지도계열로 제작됨
- \* 「小華輿圖」(澗松)는 慶州府事例임
- \* 본 표에서 제시되지 않았으나 성신여대박물관소장의 「輿地人全圖」(경기도)와 규장각소장의 「八道郡縣地圖」(경기도, 충청도, 평안도)는 각각 해동지도계열과 방안식군현지도계열임.

그림 3. 조선후기 군현지도의 유형과 계열(동래부사례)